

## [ 시티 &amp; 피처 ]

# 시립 영락공원에 '자연장' 운영

〈나무·잔디 밑에 유골 묻는 장사〉

광주시 1만5천기 규모 내달 26일 준공  
장사시설 이용료 2배 인상 추진…논란

광주시립 영락공원에 나무나 잔디 아래 화장한 유골을 묻는 자연장(自然葬)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무분별한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장기적으로 강묘 형태를 배경 또는 납골당에서 자연장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영락공원의 봉안(奉安)·화장(火葬)시설 등 장사 시설 이용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사용료를 2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26일 광주시립 영락공원에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228~257%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주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 17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내 8천700㎡ 규모로 자연장지인 '청마루동산'을 조성,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오는 7월 26일 준공 이후 이곳에서 화장한 끝장을 잔디 등의 밀에 묻어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자연장지는 잔디장·정원장·가족장지 등으로 나뉘어 있고 모두 1만5천 기를 안장할 수 있다. 사망자·유족 등에 대한 최소한의 명폐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잔디장의 경우 유골 1기당

면적은 가로와 세로 각각 35cm다. 사용기간은 45년, 사용료는 유골 1기당 34만8천원으로 책정됐다.

자연장은 수목이나 화초 주변 또는 밑에 화장한 유골분을 묻거나 뿐만 아니라 장사를 치르고 추모하는 방법으로 광주에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토 임식이나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는데다 공설 묘지난 해결, 장묘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1990년대 스위스가 처음 도입한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광주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연장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은 이후 영락공원내 유보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해왔다. 하지만 이명자 의원 등은 "고유가, 고물가를 감안하면 사용료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 시민들의 불만이 클 것 같다"며 조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유골 묻는 장사

유골 묻는 장사